

#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도솔가>, <안민가>, <원가>를 대상으로 -

신재홍\*

## <차례>

1. 서론
2. <도솔가>에 담긴 국왕의 마음
3. <안민가>의 애민(愛民)의 이념과 당대 현실
4. 신충의 정치적 역정과 <원가>
5.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향가 중에 정치적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묶어서 고찰하였다. 중세의 정치가 국왕-신하-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작품에 나타난 정치 이념은 신라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논하였다.

『삼국유사』의 기사를 준신하는 한, <도솔가>는 경덕왕 19년 전후의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준 경덕왕의 마음이 ‘곧은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천재지변에 대처하면서 백성의 안돈과 후계자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미륵의 가호 아래 성취되기를 기원한 내용이다.

<안민가>에는 중세적 가족주의에 기초한 애민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나라 정치 이념으로서, 가령 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무열왕·문무왕대 상하 계층의 화합의 모습 같은 것이 이념화된 것이다. 그와 같은 이념 제시의 이면에는 경덕왕 당대의 정치 현

\*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놓여 있다.

신충을 김충신(金忠信, 金忠臣)과 동일인으로 본 역사학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간략하나마 작가론을 펼쳤다. 신충은 당나라에서 8년간 숙위하였고, 귀국 후 효성왕 즉위를 둘러싼 세력 다툼 속에 일시적으로 소외당하였다. 이 때 지어진 <원가>에는 왕족으로서의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보필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신충은 향가 창작뿐 아니라 당나라 사신의 접대를 위해 재등용된 듯하다.

향가의 정치적 주제에 대한 연구는 향가 장르가 지닌 역사적 성격을 드러내고 오늘날에도 현실감 있는 문학으로 수용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향가, 정치 이념, 정치 현실, 경덕왕, 애민, 신충

## 1. 서론

향가는 인간의 정서와 의식을 표현한 서정시 양식이다. 정서의 표출이 주된 기능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과 사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가가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경문왕대(861-875)에 요원량 등이 금란을 유람하면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실어서 향가를 지은 예<sup>1)</sup>가 대표적이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정치적 성격을 띤 작품들을 묶어서 향가의 주제를 고찰한 예는 매우 드물다.<sup>2)</sup> 개별 작품론에서 간혹 시대 배경에 대한 논

1) 『三國遺事』(『한국불교전서』6, 동국대출판부, 1982), 2권, 紀異 卷, 四十八景文大王. “國仙邀元郎譽昕郎桂元叔宗郎等 遊覽金蘭 暗有爲君主理邦國之意 乃作歌三首.”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94, 164-173면에서 월명사와 충담사를 묶어 서술하면서 <도솔가>와 <안민가>의 정치적 배경을 간략히 논한 바 있다.

의가 이루어졌으나, 작품 내용과 연관짓는 데 무리가 따르기도 하였다. 대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한정된 논의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갖는 설화성이나 소략함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가급적 당대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작품 내용과 긴밀하게 관련지어 논하고자 한다.

향가의 정치적 주제를 논하는 것은 향가가 지닌 역사적·현실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향가에 지나치게 덧씌워진 주술적·종교적 성격을 덜어내고, 향가의 인간적·일상적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향가의 실상에 좀더 다가서려는 노력인 것이다.

중세의 정치는 국왕과 신하와 백성 사이의 수직적 신분 관계에 기초해 있다. 그에 따라 정치 문제는 신하가 귀족 및 백성의 뜻을 살펴 왕에게 알리거나, 국왕의 뜻이 신하를 통해 백성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문건화된다. 향가의 정치적 주제 역시 국왕-신하-백성 간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논급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안민가>에 신라 시대에 이상으로 여기던 정치적 질서관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가를 이룩해 운영해 온 경험이 축적되면 정치는 단순한 통치일 수 없고, 국민을 결합시켜 각기 자기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를 수반해야 한다. 신라는 그 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고 생각된다.<sup>3)</sup>

역사적 경험 속에 축적된 정치의 이념이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지적한 말이다. 관계항의 설정과 주체적 정치 이념 탐색 이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향가 주제론이 실질적인 의의를 얻게 되리라 본다.

현존 향가 중 정치색이 짙은 작품으로 <모죽지랑가>, <도술가>, <안

3) 조동일, 「안민가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138면

민가>, <원가>를 들 수 있다.<sup>4)</sup> 이 중 <모죽지랑가>는 이미 논한 바 있기에<sup>5)</sup> 본고에서는 뒤 3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세 작품은 8세기 성덕왕·효성왕·경덕왕 치세의 신라 중대에 나왔으므로, 작품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이 시기에 집중될 것이다.

## 2. <도솔가>에 담긴 국왕의 마음

<도솔가(兜率歌)>의 창작 배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의 의식]을 지으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원전에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임금의] 수레가 청양루에 거동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sup>6)</sup>

이 기록을 준신한다면, 경덕왕, 동왕 19년(760) 4월 초하루, 이일병현(二日并現), 일관, 산화공덕, 조원전(朝元殿), 청양루(靑陽樓) 등의 사항을 살펴해보아야 이 작품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작품이 창작된 경덕왕 19년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적 사건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sup>7)</sup> 동왕 16년에는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주군현의 이름

4) 위의 논문, 같은 곳에서는 <우적가>를 거명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 작품은 정치적이기보다 종교적이다.

5) 신재홍, 「모죽지랑가의 시대 배경과 현실 인식」,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신재홍, 「모죽지랑가와 8행 향가의 양식적 특성」, 『고전시가 읽어 읽기』 상, 태학사, 2003.

6) 『삼국유사』 5권, 感通 卷, 月明師 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浹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 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緣僧.”

7) 『三國史記』(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1, 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을 모두 한자식으로 바꾸었고, 18년에는 중앙 정부의 부서 이름을 한자식으로 바꾸었다. 경덕왕대 이루어진 중국식 지명과 제도의 수용이 바로 작품 창작 2, 3년 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동왕 17년 7월에 태어난 왕자를 19년 7월, 곧 왕자가 세 살 되는 때에 맞추어 왕태자로 책봉하였다. 아이를 못 낳은 삼모부인을 내쫓고 동왕 2년 4월에 맞이들인 만월부인이 15년이 지나서야 왕자를 낳았으니, 그 사이 왕과 왕비의 걱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이는 동왕 4년 7월에 동궁을 수리하고, 11년에 동궁아관이라는 태자 직속 관청의 관리를 설치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후사 문제에 얼마나 골몰하였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자를 위해 미리 궁궐을 수리하고 관리를 두었을까 싶은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경덕왕이 표훈에게 후사를 부탁하는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sup>8)</sup> 이와 같이 경덕왕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동왕 19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덕왕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동왕 2년 8월에 지진, 3년 겨울에 요성, 4년 4월에 우박, 5월에 가뭄, 6년 3월에 진평왕릉에 벼락, 가을에 가뭄, 겨울에 눈이 안 내림, 7년 1월에 천구성, 8년 2월에 폭풍, 13년 4월에 우박, 8월에 가뭄과 누리의 재해, 14년 봄 가뭄, 15년 4월에 우박, 17년에 천둥 번개와 벼락, 18년 3월에 혜성, 19년 1월에 귀신의 북소리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다보니 급기야는 동왕 15년 2월에 상대등 김사인이 근년에 재앙과 이상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극론하기까지 하였다. 배경기사의 이일병현은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sup>9)</sup>

9권, 신라본기 제9, 『경덕왕조 참조 이하, 경덕왕대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은 따로 각주를 달지 않고 설명하겠다.

8)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9)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43 면에서 해가 둘 이상 나타났다는 역사 기록이 사실일 수 있음을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황병익 「『삼국유사』 ‘이일병현’과 「도술가」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11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52-154 면에서는 이를 환일(幻日)·해무리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

이일병현의 이변을 살피고 불양 의식을 건의한 것은 일관이었다. 선덕여왕대 세운 첨성대로 대표되는 신라의 천문 관측술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통을 확보하였을 터이나, 기록상 효소왕 원년(692)에 고승 도증이 당나라에서 천문도를 가져다 바친 것으로 미루어 신라 중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을 것이다. 효소왕대를 지나 성덕왕 17년(718)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누각전이 설치되었고, 경덕왕 8년(749)에는 천문박사 1인과 누각박사 6인을 두었다. 이로써 보다 과학적인 천문 관측과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배경기사의 일관은 아마도 이 천문박사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조언을 구하였을 것이다.

월명사가 <도술가>를 지어 불양의 의식을 거행한 곳은 조원전에 차린 제단 앞에서였다. 이 조원전은 신라 궁궐의 정전(正殿)으로서,<sup>10)</sup> 진덕여왕 5년(651) 국왕이 신하들로부터 신년 하례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던 곳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긴 하지만 아마도 조원전에서의 신년 하례식은 신라 말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경문왕 8년(868) 8월에 조원전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이 궁전이 후대까지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애장왕 7년((806)과 헌강왕 4년(878)에는 이곳에서 국왕이 일본 사신을 인견하기도 하였다. 궁전 이름인 ‘조원’을 엄두에 둔다면 애초에 이 건물은 신년 하례를 포함하여 아침 조회를 위해 건립된 것 같다.

의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서 경덕왕은 수레를 타고 청양루에 거동하였다. 이 청양루는 작품이 창작되기 두 달 전 곧, 경덕왕 19년 2월에 건설한 월정교와 춘양교 중 후자일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원성왕 14년(798) 3월에 궁궐 남쪽 누교(樓橋)에 화재가 났다는 기록<sup>12)</sup>을 통해 월정교와 춘양

자에서는 이일병현을 왕당파 대 반왕당파의 대립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에 대해 매우 설득력있게 비판하고 있다.

10) 『東京雜記』(『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경도잡지·동경잡기』, 대양서적, 1978, 420면), 東京雜記刊誤. “正殿曰朝元殿.”

11) 신재홍, 「4행 향가의 문학성」, 『고전문학과 교육』 3, 청관고전문학회, 2001, 174면.

교가 누각을 이고 있던 다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양루가 춘양교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도술가>가 지어지기까지의 정치적 배경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성덕왕의 친당(親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의 지명과 정부 부서명을 한자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후사의 문제가 중요했는데 왕비를 교체하고도 1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었다. 바야흐로 이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는 일이 급선무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 왕대는 자연 재해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백성들을 위로,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신하들의 시국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가 둘로 나타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효소왕대·성덕왕대를 거쳐 이전보다 과학화된 천문 관측술로 사태를 파악한 일관은 그 수습책으로 산화공덕을 통한 불양 의식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경덕왕은 신라 궁궐의 정전인 조원전에 제단을 차렸을 뿐 아니라, 바로 두 달 전에 건설한 청양루(춘양교)에 몸소 거동하여 의식의 집행자를 뽑고자 하였다.

이 때, 월명사가 발두독의 남쪽 길로 오니, 왕이 부르게 하여 제단을 열고 계문(啓文)을 짓도록 명하였다. 월명사가 아뢰기를 “신승(臣僧)은 단지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그저 향가만 알고 성범(聲梵)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미 인연 있는 스님으로 점지되었으니 향가를 사용해도 좋다.” 하였다. 월명사가 이에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sup>12)</sup>

그런데 의식을 거행할 인물로 국선의 무리에 속한 스님인 월명사가 뽑

12) 『삼국사기』 10권, 신라본기 제10, 원성왕 十四年 “春三月 宮南樓橋災.”

13) 『삼국유사』 5권, 감동 제, 월명사 도술가 “時有月明師 行于阡陌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 王曰 既卜緣僧 雖用鄉歌 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했다. 이는 경덕왕이 강력히 추진했던 중국 제도 수용 정책과는 상반된 선택으로 보인다.

신문왕 원년(692)에 일어난 김흠돌의 반란 이후, 신라 중대에 화랑의 활동이 기록된 바가 별로 없다. 경덕왕대에 이르기까지 효소왕대 부레랑이 10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관을 유람하였다는 기사<sup>14)</sup>가 거의 전부이다. 신라 하대에는 화랑인 응림이 경문왕이 된 데에서 화랑이 다시 정치 일선에 등장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경덕왕대에는 화랑의 존재가 미미한 것이다. 추측컨대, 성덕왕대·경덕왕대의 친당 정책에 따라 신라 고유의 사상과 제도를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화랑 제도는 점차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낭도승려인 월명사와 충담사가 경덕왕대의 인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에 경덕왕 19년 4월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친당 정책에 기울어진 경덕왕이, 태자 책봉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천체의 이변에 대해, 화랑도 소속의 승려를 선발하여 불교 의식으로서의 산화공덕<sup>15)</sup>을 거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자가 낭도승려라는 점에서 신라의 전통적인 화랑도의 이념<sup>16)</sup>이 불교 의식에 접맥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경덕왕이 바꾼 정부 부서의 중국식 명칭이 17년 후인 혜공왕 12년(776)에 원상복구된 점에서 신라 중대 친당 정책과 전통 계승 정책 간의 길항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 지어진 <도술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4) 『삼국유사』 3권, 탑상 제4, 백률사.

15) 의식의 절차에 대해서는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42-47면;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161-167면;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432-435면을 참조할 수 있다.

16)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144-146면에서 흥방국(興邦國)이라는 풍월도의 이념이 <도술가>의 중심 사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이이 散花 불러	오늘 이에 산화가 불러
보보솔본 고자, 너은,	날려 올리는 꽃아, 너는,
고든 므스믹 命人 브리이악	곧은 마음의 명에 부러져서
彌勒 座主 뵈셔라.	미륵 좌주 모셔라 <sup>17)</sup>

천체 이변의 불안을 위해 산화공덕의 의식을 거행할 때 월명사가 지은 작품이다. 산화공덕이기 때문에 ‘꽃’을 ‘날려 올리는’ 행위가 묘사되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제3, 4행에서 제시되었다. 혹시 닥칠지도 모를 재액을 털어내기 위해 미륵불을 이곳으로 모셔오라고 꽃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 명령의 주체가 제3행의 ‘곧은 마음’이다. 이는 지금 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이, 곧 경덕왕의 마음인 것이다.<sup>18)</sup>

그러면 경덕왕은 어떠한 인물인가?<sup>19)</sup> 당대의 금석문에 기록된 바, 그는 성덕왕의 ‘효성스런 후계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큰 왕업을 이어 지켜 못 정사를 잘 보살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찍이 어머니(소덕왕후)를 여의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일어났으며 거둬 아버지(성덕왕)를 잃어 텅빈 대궐을 대할 때마다 슬픔이 더하였으니, 조상을 생각하는 정은 점점 슬퍼지고 명복을 빌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여졌다.’<sup>20)</sup> 이렇듯 경덕왕

17) 본고에서 거론하는 세 작품의 해석은 모두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에 의한다.

18)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2, 64면; 신재홍, 앞의 논문, 2001, 175면.

19) 경덕왕에 대해 ‘고집’(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17면), ‘편벽성’(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237면), ‘아집’(이도흠, 『신라 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202면) 등을 말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관용·시혜·애민(윤영옥, 앞의 책, 233면; 김승찬, 앞의 책 134면)의 정치를 펼친 군주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경덕왕이 혹시 고집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천체의 이변을 당해 국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면모가 작품 내용에 더욱 잘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성덕대왕신종명』,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1992, 390면. 원문은 385면 “孝嗣景德大王 在世之日 繼守丕業 監撫

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인간이었다. 게다가 후사를 잇는 일에 온 관심을 기울여 왕비를 교체하기도 하고, 태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궁을 수리하여 관리를 두고, 표훈과 같은 고승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경덕왕이 지닌 혈육에 대한 정성을 염두에 둘 때, 곧 있게 될 태자 책봉의 중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일병현의 불길한 징조를 불양해야 할 터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덕왕이 부모를 위해 성덕대왕신종을 만드는 일을 추진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덕왕이 추진한 종의 주조 사업은 당시의 재상 김대성이 현세와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한 일<sup>21)</sup>과 더불어 이해된다. 국왕을 비롯한 신라 귀족들에게 부모의 명복을 비는 일은 불교적인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의 명복은 또한 후손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라 귀족에게 불교 신앙은 가문의 번창을 기원하는 데 소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경덕왕은 자신의 치세에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에 대해 고심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경덕왕 6년의 가뭄에 사자를 지방에 보내 백성을 안무(安撫)하였고, 동왕 14년에 죄인을 사면하고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위문하였다. 동왕 15년에는 김사인의 시국 비판을 가납하였고, 22년에도 이순의 간언에 감탄하였다. 어느 왕이나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힘을 쏟았을 터이지만, 경덕왕은 보다 허심탄회한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는 어쩌면 부왕인 성덕왕이 행하여 널리 칭송받은 구휼 정책<sup>22)</sup>을 본받으려 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도술가>는 경덕왕의 이와 같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일병현을 불양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로 인해 야기될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

庶機 早隔慈規 對星霜而起戀 重違嚴訓 臨闕殿以增悲 追遠之情轉悽 益魂之心更切。”

21) 『삼국유사』 5권, 효선 제9, 대성효이세부모 신문왕대.

22) 『삼국사기』 8권, 신라본기 제8, 성덕왕6년;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성덕왕.

하여 백성들을 안돈케 하려는 것이고, 어렵게 얻은 왕자가 태자로 책봉되어 국가의 대업을 잘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월명사는 산화공덕 의식의 주관자인 경덕왕의 이러한 마음을 제3행에서 ‘곧은 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4행에서 ‘미륵 좌주 모셔라’는 명령으로써 작품을 마무리한다. 산화공덕을 통해 미륵불을 의식의 자리에 모셔옴으로써, 정성을 바치는 경덕왕에게 불력(佛力)이 함께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미륵신앙에 경도되었을뿐더러 자신을 미륵과 동일시하였을지도 모른다<sup>23)</sup> 경덕왕의 사상적 지향성을 월명사가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언적으로 경덕왕을 미륵불과 일치시켜 왕즉불(王卽佛)의 관념을 강화함으로써 천체의 변괴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백성의 안돈과 후계자의 확립이 미래불인 미륵의 가호 아래 성취되기를 기원하였다. 경덕왕대에 미륵신앙이 정치 이념의 하나로 채택된 경우라 하겠다.

### 3. <안민가>의 애민(愛民)의 이념과 당대 현실

<안민가(安民歌)>는 <도솔가>처럼 창작 연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덕왕 몇 년의 일인지는 알 수 없다.<sup>24)</sup> 그렇지만 경덕왕대에 보이는 두 번의 시국에 대한 건의를 참조하여 시대 분위기만큼은 추측해 볼 수 있다.

23) 윤영옥, 앞의 책, 233면 및 237면 주42) 참조

24) 창작 연대에 대해 경덕왕 22년설(김선기, 「안민가」, 『현대문학』 148, 현대문학사, 1967, 280면), 동왕 24년설(박노준, 앞의 책, 240, 246면; 조동일, 앞의 책, 169면), 미확정설(윤영옥, 앞의 책, 218-219면) 등이 있다. 『삼국유사』의 해당 기록 ‘御國二十四年’은 경덕왕의 재위 기간을 말한 것이지 사건의 발생 연대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영옥의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5년(756) 봄 2월에 상대등 김사인이 근년에 재앙과 이상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극론하니 왕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sup>25)</sup>

22년(763)…대나마 이순은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거기서 살았다. 후에 왕이 풍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곧 궁궐문에 나아가 간하여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옛날 걸과 주가 술과 여자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말미암아 정치가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엮어진 수레가 있으면 뒷 수레는 마땅히 경계하여야 될 것입니다. 엮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소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고는 곧 그를 방으로 인도하여 불교의 오묘한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며칠 동안 듣다가 그쳤다.<sup>26)</sup>

15년 기사는 김사인의 상소문 내용이 없는 데 비해, 22년 기사는 비교적 분명한 정치적 이슈를 알아볼 수 있다. 스님이 된 옛 신하 이순이 풍악을 즐기는 왕을 찾아와 걸주를 거론하면서 극론한 것이다. 자신을 걸주에 비기는 말을 좋아할 왕은 별로 없을 텐데도 경덕왕은 이순의 극론에 감탄하고 곧바로 잘못을 시정하였다. 이 점은 앞서 김사인의 극론에 대해 경덕

25) 『삼국사기』 9권, 신라본기 제9, 경덕왕. “十五年 春二月 上大等金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번역문은 같은 책 2, 번역편 195 면에서 가져왔다. 이하 『삼국사기』의 번역문은 이 책에서 가져오지만, 문맥이 어색한 대목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여 인용하겠다.

26) 같은 곳, 경덕왕. “二十二年 (….) 大奈麻李純 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 居之 後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桀紂 荒于酒色 淫樂不止 由是 政事凌遲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車宜戒 伏望 大王改過自新 以永國壽 王聞之感歎 爲之停樂 便引之正室 聞說道妙 以及理世之方 數日乃止.”

왕이 보여준 태도와도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해 경덕왕이 신하의 충언을 귀담아 듣고 가급적 실천에 옮기려 한 군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덕왕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치세 내내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어느 시점에 <안민가>의 배경기사에 기록된 충담사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해 3월 삼진날에 경덕왕은 귀정문(歸正門) 누각 위에 나와 있다가 좌우 신하에게 영복승(榮服僧)을 청해 올 것을 명령하였다. 삼진날은 가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계욕일(禊浴日)인데, 이 풍습은 신라에서도 행해졌을 터이다. 귀정문은 문무왕의 서제 거득공이 순행할 때 무진주에서 만난 안길이가 서라벌로 와서 거득공을 만나려고 기웃거렸던 월성의 서쪽 문으로서, 궁궐에서 제일 바깥에 있던 정문이었다.<sup>27)</sup> 말하자면, 봄 명절을 당하여 경덕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월성 서쪽의 귀정문 누각에 올랐던 것이다. 문루에 오른 것은 궁궐 밖 민간의 명절 행사를 멀리서 관망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 봄날의 서라벌 거리에 나온 많은 상춘객 중에는 영복한 스님들이 다수 있었을지 모른다.<sup>28)</sup> 그 중의 한 스님을 신하가 모셔왔으나 경덕왕은 물리친다. 그 대신 누비웃에 앵통을 짊어진 충담사를 영복승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충담사는 삼진날(3월 3일)과 중구절(9월 9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 공양을 드리곤 하였다. 그런데 진평왕대 안흥사의 비구니 주지 지혜가 꿈에 선도산 신모에게서 계시를 받아 절을 새로 짓고 매년 점찰법회를 행한 날이 3월 10일과 9월 10일이다.<sup>29)</sup> 날짜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봄

27) 『삼국유사』 2권, 기이 제, 문호왕 법민; 『동경잡기』, 동경잡기간오. “歸正乃最外之正門 又曰 歸正西門也.”

28) 배경기사에서 ‘一大德 (...) 徜徉而行’의 ‘徜徉’이 상춘하면서 배회하는 객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는 달리 이 단어를 신하들의 모의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한다.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167-168면.

29) 『삼국유사』 5권, 감통 제, 선도성모수회불사 이민수 번역본의 주석에서 안흥사는 경북 영주군 팔공산에 있던 절이라 하였다.(일연 저, 김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83, 360면)

가을 그 즈음에 토속신앙과 결합된 불교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차 공양은 신문왕대 보질도와 효명 태자가 오대산에 들어가 일만 문수보살께 드린 사례가 있다.<sup>30)</sup> 또한 월명사가 <도술가>를 지어 일괴(日怪)가 소멸되자 경덕왕은 품질 좋은 차 1습과 수정 염주 108개를 상사한 적이 있다.

충담사가 차 공양을 드린 삼화령 미륵세존은 생의사의 돌미륵이다.<sup>31)</sup> 선덕여왕대 생의 스님이 꿈에 어떤 스님이 가르쳐 준 곳을 파서 얻은 돌미륵을 삼화령에 안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진성여왕대 효종랑이 효녀 지은을 도와줄 때 낭도들과 유람했던 장소가 남산의 포석정 혹은 삼화술(三花述)로 기록되어 있다.<sup>32)</sup> 이에 경덕왕대 충담사와 진성여왕대 효종랑의 행적과 관련된 삼화령은 화랑도의 유람처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랑이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당대의 관념에 비추어 삼화령의 돌미륵은 화랑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삼진날에 경덕왕이 불러들인 충담사는 미륵불을 모시며 화랑도로 활동하던 낭도승려로서 앞장에서 살핀 월명사의 성격과 상통하는 인물이다.<sup>33)</sup> 경덕왕은 이들을 만남으로써 불교와 접맥된 화랑도의 정치사상을 현실 정치에 원용하려 했다. 왕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충담사는 <안민가>를 지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君은 아비아,  
臣은 드스실 어시아,  
民은 얼흔 아히”고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30) 『삼국유사』 3권, 탑상 제4, 대산오만진산, 같은 곳,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

31) 같은 곳, 생의사석미륵

32) 『삼국유사』 5권, 효선 제9, 빈녀양모, 孝宗郎 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33) 경덕왕이 ‘왕사(王師)’로 봉하려고 하였는데 충담사가 사양했다는 배경기사의 기록에 주목한다면, 그를 낭도승려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인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흐실디, 민이 드술 알고다	하실진대, 백성이 사랑을 알리로다
구릿 불흘 살이기 바—物生	아궁이의 불을 살린 바—물생
이흘 먹악 다스라	이를 먹어 안정하여
“이 짜홀 브리곡 어딤 가늘데!”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져!”
홀디, 나라기 디니기 알고다	할지면, 나라가 [자신들을] 부지함을 알리로다.
아야, 君닷 臣다히 民닷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흐닐든 나락 太平흐니—사다.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니이다

이 작품은 신라사(新羅史)에서 단편적이거나 찾아볼 수 있는 정치의 이념을 담고 있다.

천자가 위로하면서 “어찌 내친 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소]정방이 말하기를,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들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처럼 섬기니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sup>34)</sup>

“우리나라 임금님은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백성이 즐겁게 모두 자기 일을 즐기고 있음을 지금 내가 보았으니 가서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드디어 위로하여 보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유신이 재상을 하고 있는 한 가벼이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sup>35)</sup>

34) 『삼국사기』 42권, 열전 제2, 김유신 중. “天子慰藉之曰 何不因而伐新羅 定方曰 新羅其君仁而愛民 其臣忠以事國 下之人事其上如父兄 雖小不可謀也.”

35) 같은 곳. “吾國王 上不違天意 下不失人心 百姓欣然 皆樂其業 今爾見之 往告而國人 遂慰送之 麗人聞之曰 新羅雖小國 庾信爲相 不可輕也.”

위의 두 기록은 태종무열왕 및 문무왕대 신라는 국왕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가 조화되어 당나라나 고구려와 같은 강대국에게도 만만하지 않은 나라로 여겨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으로서, 통일 이후 후대 왕들에게는 하나의 전범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처럼 섬기다’와 ‘백성이 즐겁게 모두 자기 일을 즐기다’는 두 말은 <안민가>에 나타나는 정치이념의 요체와 결부시킬 수 있다. <안민가>는 민생 안정을 정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국왕·신하·백성의 가족적 사랑, 그리고 백성이 영위하는 생업의 안정을 제시하였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의 자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담긴 정치이념은 신라 왕조의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와 정립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정치사상을 담고 있음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sup>36)</sup>

신라의 역사적 경험이 정치적 이념으로 정립되는 양상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왕이 나라 안을 순행(巡行)하다가 한 할멈이 굶주리고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내가 미미한 몸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능히 기르지 못하여 늙은이와 어린 아이로 하여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왕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밥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

36) 작품에 반영된 유교사상을 찾는 논의가 이어졌지만(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393-394면; 변중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446-449면;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368-378면), 이에 대해 ‘이 구절(논어 안연편-인용자)을 아무 역사의식 없이 그대로 분따온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박노준, 앞의 책, 234면 주))거나, ‘이 글(안연편-인용자)은 정명사상을 보여주지만, 그 내용은 군신 관계와 부자 관계에서의 정명론을 이야기한 것이지, 안민가에서와 같이 군·신·민 삼자 관계에서의 정명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697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필자는 후자를 좀더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리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곳곳에 있는 홀아비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와 늙고 병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부양하게 하였다. 이에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옮겨 오는 자가 많았다. 이 해에 백성의 풍속이 즐겁고 편안하여 비로소 도술가(兜率歌)를 지었다. 이것이 가악(歌樂)의 시초이다.<sup>37)</sup>

백제의 독산성주가 남녀 300명을 거느리고 항복하여 왔으므로 왕은 이들을 받아들여 6부로 나누어 살게 하였다. 그런데 백제왕이 글을 보내 말하기를, “양국이 서로 화친하여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는데 지금 대왕이 우리나라에서 도망한 백성을 거두어 두시니 이는 화친하는 뜻에 심히 어그러진 일로서 이런 것을 대왕에게 바란 바 아닙니다. 청컨대 이들을 곧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왕이 회답하기를 “백성들은 떳떳한 마음이 없는 탓으로 생각이 나면 오기도 하고 마음에 싫으면 가버리기도 하는 것이 실로 그 소위(所爲)입니다. 그런데 대왕은 백성들의 불안한 것은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과인을 책망하니 어찌 그리 심합니까?” 하자, 백제왕은 이 말을 듣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sup>38)</sup>

앞의 기사에서 보듯이, 가악의 시초가 되었던 <도술가>는 유리왕의 구휼 정책과 연계되어 나온 것이다. 뒷 기사에서는 한 성의 투항사건을 두고 백제 근초고왕이 항의한 데 대해 나물왕이 답신을 보내면서 그 정당성을

37) 『삼국사기』 1권, 신라본기 제1, 유리 이사금 5년 “王巡行國內 見一老嫗飢凍將死 曰 予以眇身居上 不能養民 使老幼至於此極 是予之罪也 解衣以覆之 推食以食之 仍命有司 在處存問 鰥寡孤獨 老病不能自活者 給養之 於是 鄰國百姓 聞而來者衆矣 是年 民俗歡康 始製兜率歌 此歌樂之始也.”

38) 『삼국사기』 3권, 신라본기 제6, 奈勿尼師今 十八年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數則去 固其所也 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

선언하고 있다. ‘백성들은 뗏뗏한 마음이 없는 탓으로 생각이 나면 오기도 하고 마음에 싫으면 가버리기도 하는 것’이라는 말은 위정자가 백성에게 어떤 정치를 행해야만 하는지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안민가> 제7행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제’라는 간명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에서 태종무열왕·문무왕대의 기사를 살핀 바 있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 정치의 이상이 요약된 것은 아마도 다음의 기사일 것이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변경은 평온하여 민간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덕의 소치입니다.<sup>39)</sup>

신라 말기로 접어든 헌강왕대의 정치 현실은 달랐을지 모르나, 이 말에 정치의 이상이 표면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순조로운 기후에 따른 풍년, 변경의 안정, 이로 인한 백성들의 삶의 구가가 그 내용이다 이것이 <안민가> 제10행의 ‘태평’한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하에 나온 정치적 이념의 이면에는 당대 정치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앞장에서 <도술가>를 다루면서 논급했듯이, 경덕왕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잇달았고, 이에 따라 백성이 많이들 굶주렸다. 『삼국사기』 경덕왕대의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걸식하였을 것임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경덕왕 14년에 웅천주의 백성 향덕이 자기 다리의 살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인 일<sup>40)</sup>도 국가에서 표창할 만한 일이기 이전에 굶주린 백성들이 연명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의 한 극단을 보여준 예이다.

이와 함께 경덕왕대는 토목 공사가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는 점도 유의

39) 『삼국사기』 11권, 신라본기 제1, 憲康王 六年 “上即位以來 陰陽和風雨順 歲有年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聖德之所致也.”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

40) 『삼국사기』 48권, 열전 제8, 향덕.

할 만하다. 동왕 4년 7월에 동궁을 수리하였고, 7년 8월에 태후를 영명신궁(永明新宮)으로 옮겨 거처하게 하였다. ‘신궁’이라 하였으니 영명궁을 새로 지었을 것이다. 13년 5월에는 성덕왕비(聖德王碑)를 세웠고 7월에는 영흥사와 원연사의 두 절을 수리하였다. 16년 7월에 영창궁을 수리하였고 19년 2월에 월전교와 춘양교의 두 다리를 놓았다. 21년 5월에는 쾌강진(淸江鎭)의 여섯 산성을 개축하였다. 이러한 토목 공사에 백성들이 동원되었을 터인데, 부역이 잦은 만큼 생계를 위한 노동이 위축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고단하였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경덕왕대에는 정변이나 외침이 없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민가>는 이러한 시대 배경 하에 백성들이 유리결식하거나 지나치게 부역에 동원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5·6행 ‘아궁이의 불을 살린 바 물생 / 이를 먹어 안정하여’에 명백히 표명된 바,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덕왕대는 반란이 없었지만, 신라 중대 최대의 반란 사건인 김흠돌의 난이 경덕왕의 할아버지인 신문왕 원년(681)에 일어났고, 효소왕 9년(700)에는 경영의 난, 효성왕 4년(740)에는 영종의 난이 일어났다. 중대 왕권은 통일 왕국으로서의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간헐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혜공왕대에는 견잡을 수 없이 반란이 즉출한다. 이로써 보면 경덕왕대의 안정된 정치의 배후에는 왕권에 도전하려는 귀족 세력들이 움크린 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대의 현실이 <안민가> 제9행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에 반영되어 있다. 국왕과 신하와 백성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민생과 정치의 안정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와 같이 <안민가>에 담긴 정치 이념과 그 배후에 도사린 정치 현실은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경덕왕의 요청에 답하면서 충담사는 역사적 경험과 당대의 현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예리한 통찰

을 바탕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이념의 요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화랑도에 속한 승려로서 신라의 역사적·문화적 토양을 지적인 배경으로 삼은 지식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4. 신충의 정치적 역정과 <원가>

<원가>의 작가 신충은 신라의 왕족으로서, 성덕왕·효성왕·경덕왕대의 중요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sup>41)</sup> 그는 성덕왕 25년(726) 하정사(賀正使)로 당나라에 갔다. 그곳에서 숙위(宿衛)하고 있던 중 동왕 32년(733) 7월에 발해가 등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군사를 동원해 협공하라는 당 현종의 칙서를 성덕왕에게 전하는 사신으로 선정되었다가, 어떠한 사정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김사란(金思蘭)으로 교체되었다. 그해 12월에 입당한 김지렴(金志廉)과 교대하여 귀국하기를 청하는 표문을 다음해인 동왕 33년(734)에 올렸다.

(...) 폐하께서 앞서 명을 내려 본국왕 흥광(성덕왕)에게 영해군대사의 관작을 더하고 신임표를 주어 흉악한 도적을 토벌케 하였으니, 황제의 위엄이 닿는 데는 비록 먼 곳이라도 가까운 것 같고,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제가 어찌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준동하던 오랑캐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리라 생각되나 악을 제거함에는 근본을 다스려야 하고 법을 펴는 데는

41) 권문해 저,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대동운부군옥』 2, 소명출판, 2003, 163면(원문 352면)에는 '忠信'으로, 같은 책 3, 166면(원문 410면)에는 '金信忠'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수태 『신라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1996, 89-90면; 정구복 외, 앞의 책 3, 주석편·상, 271, 281면에서 신충을 『삼국사기』 성덕왕 25년조에 기록된 김충신(金忠臣), 동왕 33년조에 나오는 김충신(金忠信)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원가>의 작가 신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데는 의리가 세 번의 승리보다도 더 귀중하지만, 적을 풀어놓으면 후환이 몇 대까지 끼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에 신에게 부사(副使)의 직책을 임시로 주시어 황제의 뜻을 가지고 먼 바깥으로 나아가 거듭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찌 황제의 위엄만 떨칠 뿐이겠습니까? 웅당 또 군사들도 기운을 내어 반드시 그 소굴을 둘러엮고 거친 변방도 안정되어, 마침내 동쪽 신라의 신하인 신의 작은 정성이 이루어져 국가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sup>42)</sup>

이 표문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것은 아마도 외국 사신으로서 중국 왕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낸 글의 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외교 정세에 비추어 당나라가 발해를 치는 명분과 위엄을 추켜세우는 가운데 자신이 귀국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공손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인 것이다. 이렇듯 신충은 당과 발해와 신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당나라에서 숙위하고 있다가, 표문을 올린 그 해에 신라로 귀국할 수 있었다. 8년간이나 당나라에 있었던 신충은 성덕왕의 친당 정책을 보좌하는 실무진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충은 성덕왕 33년(734)에 귀국한 후 동왕 36년(737) 2월 왕이 죽기 몇 개월 전에 태자와 만나 은밀한 약속을 하였다.

효성왕이 태자로 있을 때 어진 선비 신충과 함께 궁정의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곤 하였다. 일찍이 [신충에게] 일러 말하기를, “타일에 만약 경(卿)

42) 『삼국사기』 8권, 신라본기 제8, 聖德王 三十三年 “(...) 陛下先有制 加本國王興光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載臨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祗 蠢爾夷俘 計已悔禍 然除惡務本 布憲惟新 故出師 義貴乎三捷 縱敵 患貽於數代 伏望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惟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을 잇는다면 잣나무와 같음이 있으리라.” 하니, 신충이 일어나 절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 왕이 즉위하였다. 공신들에게 상주면서 신충을 잊고 차례를 매기지 않았다.<sup>43)</sup>

신충은 성덕왕 23년(724)에 태자로 책봉된 승경(承慶)과 ‘궁정’이라 표현된 동궁(東宮)의 뜰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곤 하였다. 왕족인 그가 궁중에서 태자와 어울릴 기회는 많았을 터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둘 사이에 무슨 말들이 오가던 중, ‘타일에 만약 경을 잇는다면 잣나무와 같음이 있으리라’고 태자가 말했던 것이다. 그 대화의 일부가 <원가> 제3행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구나’이다. 태자가 신충과 더불어 정치적 진퇴와 부침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충은 ‘일어나 절하’는 것으로써 전폭적으로 보필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원가> 제4행에 표현된 바, 태자의 ‘낮’을 ‘우러르’며 절을 하였던 것이다.

태자와 신충이 은밀하게 맹세하는 모습에서 당시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기사들로써 약간의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성덕왕 14년(715) 12월에...왕자 중경(重慶)을 태자로 봉하였다.

15년(716) 3월에...성정왕후(成貞王后)를 [궁궐에서] 내보냈다. 채색비단 500필과 밭 200결, 조 1만 섬과 집 한 채를 주었는데, 집은 강신공(康申公)의 옛 집을 사서 주었다.

16년(717) 6월에 태자 중경이 죽으니, 시호를 효상(孝殤)이라 하였다.

19년(720) 3월에 이찬 순원(順元)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6월에

43) 『삼국유사』 5권, 避隱 條8, 信忠掛冠.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 賞功臣 忘忠而不第之.”

왕비를 책봉하여 왕후로 삼았다.

23년(724) 봄에 왕자 승경을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12월에...소덕 왕비(昭德王妃)가 죽었다.

중경의 태자 책봉, 성정(엄정)왕후의 출궁, 중경의 이른 죽음[殤] 등이 이어진 다음, 김순원의 딸 소덕왕비의 입궁, 그녀의 아들 승경의 태자 책봉, 그녀의 죽음 등이 뒤따르고 있다

김순원의 경우, 성덕왕 이전 왕인 효소왕 9년에 경영의 반란에 연좌되어 파면된 전력이 있다.<sup>44)</sup> 비록 성덕왕 5년 이전에 복권이 되었고,<sup>45)</sup> 위에서 보듯이, 동왕 19년에 자기의 딸을 왕비로 입궁시킴으로써 정치 기반을 새로 다졌다 하더라도, 그의 전력은 정치적 대항 세력의 표적이 되었을 법하다.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김순원에 대항한 세력은 성정왕후의 배후 세력이었을 것 같다.<sup>46)</sup> 자기 아들이 태자로 책봉되고 3개월도 채 안 되어 출궁된 성정왕후 사건은 그 후 1년쯤 지나 태자 중경이 죽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중경이 병으로 죽었다면, 그의 질환이 알려진 시점에서 성정왕후에게 책임을 묻은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성정왕후와 그 배후 세력은 김순원 세력에게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소덕왕비의 아들 승경이 태자로 책봉되었다 하더라도, 성정왕후 세력이 존재하고 김순원의 전력이 계속 문제되는 한, 그의 왕위 계승은 여전히 불안하였을지 모른다. 더욱이 태자 책봉 후 1년도 안 되어 소덕왕비가 죽은 것은 궁중에서 승경이 기댈 버팀목이 사라진 것을 뜻한다.

44) 『삼국사기』 8권, 신라본기 제, 孝昭王 九年 “夏五月 伊滄慶永謀叛 伏誅 中侍順元緣坐罷免.”

45) 정구복 외, 앞의 책 3, 주석편·상, 257면

46) 김수태, 앞의 책 58-83면에서 성덕왕대의 정치를 김순원으로 대표되는 왕당파와 성정(엄정)왕후로 상징되는 진골귀족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한편, 박노준, 앞의 책 150-153면에서는 왕자 수충(守忠)을 성정왕후의 혈육으로 보고 김순원 세력과 갈등을 벌인 중심 인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할 때, 태자 승경으로서는 신충의 지지가 필요했으므로 사적인 자리에서 다짐을 받았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신충은 김순원 세력을 도와줄 중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승경이 즉위한 후 신충의 공을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충을 포함한 성덕왕 측근세력에 대한 정치적 불만으로 인해 효성왕이 박씨 왕비로 상징되는 박씨 세력을 가까이함으로써 야기되었다거나,<sup>47)</sup> 김순원 측에서 왕족인 신충을 위협하다고 느껴 정치적으로 배신한 것으로 보았다.<sup>48)</sup>

본고는 신충이 성정왕후 세력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측한다. 왕위 계승이 불안한 상황에서 태자 승경을 둘러싼 김순원 세력이 도움을 청하였을 때는 그만한 힘이 신충에게 있었을 터이다. 그 힘은 신충이 성정왕후 세력과 혈연 혹은 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김순원 세력이 상대 세력을 제어하는 데 긴요하게 이용할 만하였을 것이다. 후에 신충이 효성왕과 경덕왕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김순원 세력과 연대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인가 미묘한 정치적 행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효성왕이 즉위하자 어려웠을 때 도와준 공적보다는 기존의 정치적 배경을 문제삼아 신충을 배제하였으리라 본다.

논공행상에서 탈락된 상태에서 신충이 지은 작품이 <원가>이다.<sup>49)</sup> 당나라에서 숙위하였던 사실 자체가 신충의 한문학적 소양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와 함께 신라 고유 문학인 향가도 능숙하게 지었다는 점에서 당대 문인층의 복합적 성격을 상정할 만하다. 당시 신라의 지식·문인 계층은 당나라의 발달된 한문학을 익혀서 신라와의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인적인 정서와 사상의 표현을 위해 고유 문학에 대한 소양도 겸비했던

47) 김수태, 앞의 책 90-91면.

48) 박노준, 앞의 책, 155면

49) 창작 연대를 경덕왕 22년 이후로 보기도 하였으나(이기백, 앞의 책, 224면), 문헌 기록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받았다.(윤영옥, 앞의 책 214면)

것으로 보인다.

갓 도히 자시	물 좋은 것이
꺾술 안달 니르기 디미,	가을에 아니 이르러 떨어지매,
‘너어 다히 널져’ 흐신,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구나’ 하신,
울월돈 느치 가드시온 데야.	우리르던 낮이 변하신 데에야.
드라리 그르기 고린 못잇	달이 그림져 달은 연못에
널 뭇겨랏 식이기 다히,	오가는 물결에서 새어나감같이
즈시삿 브라나	모습이야 바라보나
누리 아모잇 숨은 데야.	누리 아무에 숨은 적에야.
後句亡	

태자였을 때의 효성왕과 함께 동궁의 뜰 잣나무 아래에서 했던 맹세가 깨어진 것을 상기하였고, 궁궐에서 왕을 모시고 정치를 보필하지 못하고 연못의 물이 새어나가듯 궁궐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한탄하였다. 제때가 아닌 때에 나무에서 떨어진 잣과 달빛 어린 연못에서 새어나간 물결에 비유하여 왕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국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치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국왕과 신하 사이의 신의(信義)의 문제, 그리고 신하로서 갖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보필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왕족으로서 늘 가까이에서 국왕을 모시고 국사를 보필하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하게 피력되어 있다. 이 점은 국왕과 신하의 신분적 관계를 넘어선 혈연 혹은 인척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이나 유대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기에 효성왕이 이 시를 보고 크게 놀라면서, ‘국가의 일로 바쁘다 보니 거의 [왕과] 가까운 친척을 잇을 뻔하였구나.’<sup>50)</sup>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에 효성왕은 신충

50) 『삼국유사』 5권, 피은 제, 信忠掛冠 “(…)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을 불러 작록을 주었다.

그런데 신충의 재등용은 향가만이 이유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효성왕 원년(737) 10월에 당나라에 갔던 김포질이 돌아왔고 동왕2년(738) 2월에 당나라 사신 형숙(邢肅)이 조문을 온 것이 그의 재등용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김포질이 귀국하여 당나라 정부에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리라는 전갈을 하였을 것이다. 조만간 닥칠 당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사업이었을 터인데, 이에 8년간이나 당나라에서 숙위하였던 신충이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당나라 사신 형숙은 신라로 올 때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일컬어지고, 자못 글을 잘 알아 중국과 비슷함이 있다’는 훈시를 받았고 또 신라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두었다’고도 하였다.<sup>51)</sup> 문장과 바둑을 잘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신충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당나라 사신의 접대를 위해 신충을 특별히 등용하였을 것이고, 일을 잘 해 낸 덕분에 다음해인 효성왕 3년(739) 1월 중시로 있던 김의충이 죽자 그 자리에 발탁하였던 것이다. 신충이 중시가 된 직후 3월에 김순원의 딸 혜명이 왕비로 입궁하였고, 5월에 헌영(憲英)(경덕왕)이 태자로 책봉되는 국가의 중대사가 이루어졌다. 이 일들에 신충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비록 일시적인 좌절이 있긴 하였으나, 신충은 성덕왕·효성왕·경덕왕 3대에 걸쳐 국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고, 효성왕 3년에 중시, 경덕왕 16년(757)에 상대등이 되어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그가 상대등으로 있었던 경덕왕 16년에서 22년까지 중국 제도 수용 정책이 단행되었는데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이제까지 살펴본 그의 이력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7년간 상대등으로 있다가 경덕왕 22년(763)에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미 <원가>에서 표현된, 연못의 물결이 흘

51) 『삼국사기』 9권, 신라본기 제9, 孝成王 二年. “(...) 新羅號爲君子之國 頗知書記 有類中國 (...) 國人善碁(...).”

러들어 왔다가 흘러나가는 심상에서 예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궁궐의 연못에 흘러드는 물결이 있고 흘러나가는 물결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왕을 보필할 인재들이 새로 뽑혀 관직을 채우고, 그 자리에 있던 인물들은 나이가 들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상의 자연스런 추이에 맞추어 신충은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다. 그의 은둔은 물 흐르듯 한 세상 이치에서 얻은 지혜로부터 우리나라 행위였던 셈이다.<sup>52)</sup> 『삼국유사』의 기사에서 그를 ‘어진 선비[賢士]’라고 평한 말이 온당함을 알 수 있다.

## 5. 결론

현존 향가 중에는 당대의 정치 현실을 반영할뿐더러 정치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본고는 이들 작품을 한데 묶어서 향가의 정치적 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왕-신하-백성의 관계에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된 점에 유념하면서,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나라 당대의 정치 이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도술가>는 친당 정책을 추진한 경덕왕이 태자 책봉과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일어난 천체의 이변에 대해 낭도승려를 택하여 의식을 거행토록 하였을 때 불린 노래이다. 이변으로 인해 나타날지도 모르는 재액을 미리 방지하여 백성들을 안돈케 하고, 어렵게 얻은 왕자가 순조롭게 태자로 책봉되어 국가를 잘 이끌어가게 하려는 경덕왕의 마음이 담겨 있다. 월명사는 이러한 국왕의 마음을 미륵신앙과 합치시켜 재난 극복의 의지를 이념화하였다.

<안민가>는 김사인·이순 같은 신하들의 극론을 가납하였던 경덕왕이

52) 고운기, 「원가와 피은의 논리」 『한국학논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6, 238 면에 서는 신충의 은둔이 유교와 불교의 피은의식의 중간에 놓인다고 보았다.

충담사에게서 듣고자 했던 정치 이념을 담고 있다. 중세적 가족주의에 입각한 애민사상은 유교사상이기 이전에 신라사의 경험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이다. 무열왕·문무왕대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처럼 섬기고, 백성들이 모두 자기 일을 즐긴다고 한 기록은 후대왕의 전범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이념이 작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충담사는 역사적 경험과 당대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이념의 요체를 제시하였다.

<원가>는 성덕왕의 친당 정책을 보좌하여 당나라에 8년간이나 숙위하였던 신충이 효성왕 즉위시 모종의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속에 잠시 소외된 상황에서 지은 작품이다. 김순원 세력과 성정왕후 세력 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양쪽에 얽혀 있었을 그의 정치적 입지가 문제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그는 당나라 사신 접대의 증책을 맡아 재기하였고 결국 중시·상대등에 이르렀다. 신충을 통해 당대에 한문학과 고유 문학에 두루 소양을 가졌던 지식·문인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는 국왕과 신하 사이의 신의, 국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과 보필의 의지가 피력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치 이념의 바탕에는 왕족으로서 갖는 유대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세 편의 향가에 담긴 정치적 주제의 중심에는 국왕이 있다. 향가 시인들은 국왕에게 백성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이념을 제시하거나 국왕을 보필하여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드러내었다. 향가는 국왕-신하-백성 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향가에 담긴 이념은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다. 물론, 역사적 경험 자체가 정치 이념일 수는 없고, 당대의 사회적·사상적 사유체계를 매개로 하여 이념화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화랑세기』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본고에서는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 문헌

- 『대동운부군옥』 2/3, 권문해 저,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회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3, 163면(원문 352면) / 166면(원문 410면).
- 『東京雜記』, 『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경도잡지·동경잡기』, 대양서적, 1978, 420면
-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390면
- 『三國史記』, 『역주 삼국사기』 1, 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480면
- 『三國遺事』, 『한국불교전서』 6, 동국대출판부, 1982, 6-245~6-369면.
- 『삼국유사』, 일연 저, 김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3, 360면
- 
- 고운기, 「원가와 피은의 논리」, 『한국학논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6, 238면
- 김선기, 「안민가」, 『현대문학』 148, 현대문학사, 1967, 280면
- 김수태, 『신라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1996, 58-91면
-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134-167면
-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42-47면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144-146면
-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368-378면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150-155면 234-246면
-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43면
-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446-449면
- 신재홍, 「4행 향가의 문학성」, 『고전문학과 교육』 3, 청관고전문학회, 2001, 174-175면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78-281면
-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393-394면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697면

-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3, 167-168면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2, 64, 214-233면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17-224면  
이도흠, 「신라 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3, 202면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57-281면  
조동일, 「안민가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138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164-173면.  
황병익, 「『삼국유사』 ‘이일병현’과 「도술가」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115,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2002, 152-154면  
황쾌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432-435면

논문투고일: 2004.8.27. 심사완료일: 2004.11.3. 게재확정일: 2004.11.4.

K C I

Abstract

The Political Idea and Reality in *Hyang-Ga*A Thematic Study on *Dosol-Ga*, *Anmin-Ga*, and *Won-Ga*

Shin Jae-hong

There are some pieces of *Hyang-Ga* which reflect the political realities and express the political ideas of *Shilla* dynas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olitical themes of *Hyang-Ga*. These themes have been form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king, ministers, and people. And they have arisen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Shilla* dynasty.

*Dosol-Ga* is a song which was sung by *Weolmyung-Sa* in the rite for the king *Gyungdeok* to protect his people and to maintain his nation. The poet expressed the king's will as 'straight mind', and intended to make an ideology by combining it with religious belief in *Mireuk* Buddha.

*Anmin-Ga* has the political idea of the poet *Chungdam-Sa* whom the generous king *Gyungdeok* listened to. The idea, which has been formed in the history of *Shilla* dynasty, is to love people. It was expressed by the poet's clear historical consciousness as the point of political ideas which were required at that time.

*Won-Ga* was composed by *Shinchung*, when he was excluded by the king *Hyosung*. His being excluded may be caused by his political status between two political parties. After composition of a poet and reception for chinese diplomatic corps, he was appointed for the prime minister. The faithfulness, loyalty, and assistant to the master were expressed in the poe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hemes of *Hyang-Ga* by the realistic and historical sight. With that way, *Hyang-Ga* genre may reveal its realistic and historical

features which could evoke the sympathy of present readers.

Key words : *Hyang-Ga*, Political Idea, Political Reality, The King *Gyungdeok*, To Love  
People, *Shinchung Kim*

K C I